

# 한국산 녹색제품 세계시장 장악한다!

## LED조명과 저속 전기자동차 주목 ... 태양광 모듈에 친환경 액체벽지도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에너지절약형 녹색제품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KOTRA는 세계의 녹색산업 동향을 전하는 <그린 리포트 6호>에서 세계 주요 11개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녹색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LED 생산기업들은 각국 지방정부를 공략해 연이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티와이드는 일본 도쿄(Tokyo)의 버스정류장 조명 LED 사업에 참여해 35만달러 규모의 조명기기를 공급했고, 경기도에 본사를 둔 C사는 미국 텍사스에서 가로등 교체작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인 CT&T는 근거리용 저속 전기자동차로 미국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또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S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태양광 산업 중추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친환경 액체벽지를 생산하는 송우는 중국에서 합작생산 방식으로 현지 판매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세계시장은 친환경 녹색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공격적으로 개척해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8>